

해운대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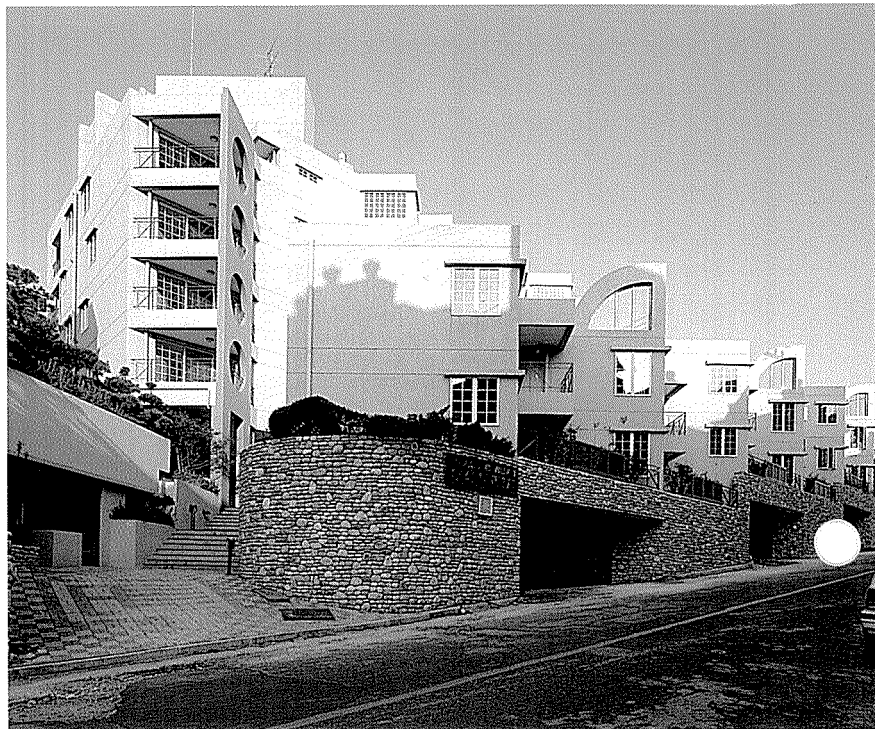
Haeundae Village

趙成龍 / 우원건축
by Cho Seong-Ryong

언제부턴가(아마 올림픽이 끝난 즈음이라) 주택이 여기 저기에 이른바 빌라라고 부르는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빌라는 작게는 두 세대에서부터 20세대미만의 주택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이르는 말이다. 요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무슨 무슨 하이츠, 빌리지, 빌라 타운 등 그 이름으로 따지자면 꽤 규모가 될 성싶은 광고가 늘어났다. 그래서 지난 20여년동안의 아파트 붐이 빌라 붐으로 바뀐 것처럼 느껴질 정도지만 실은 주택의 구성방식으로 보아 연립주택 이거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주택공급업자나 입주자들은 이 빌라를 연립주택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싶어한다. 그러나 동네 구석구석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들어차버려 이제는 그런 인식마저 뚜렷하지 않게되어 버렸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북쪽을 쳐다보면 바다로 툭 튀어나온 언덕이 눈에 들어온다. 이 일대를 달맞이고개, 달맞이 언덕이라고 부른다. 낭만적인 이름에 걸맞게 송림과 잡목이 우거진 낮은 언덕아래 풍경과는 달리 그 위는 오래 전에 들어선 아파트와 몇년 동안 집중적으로 세워진 빌라들로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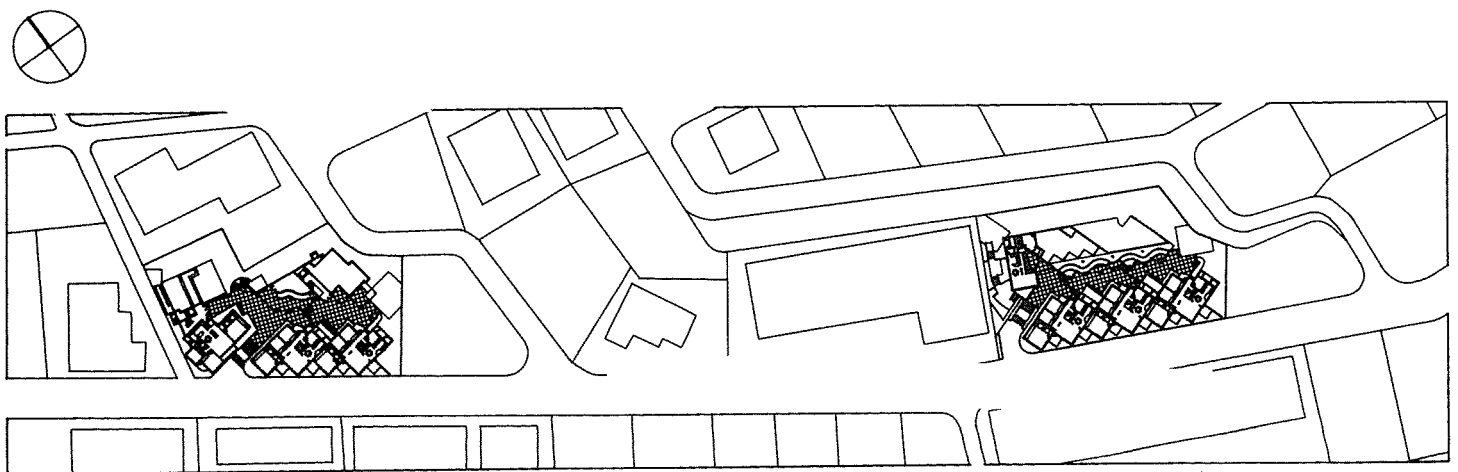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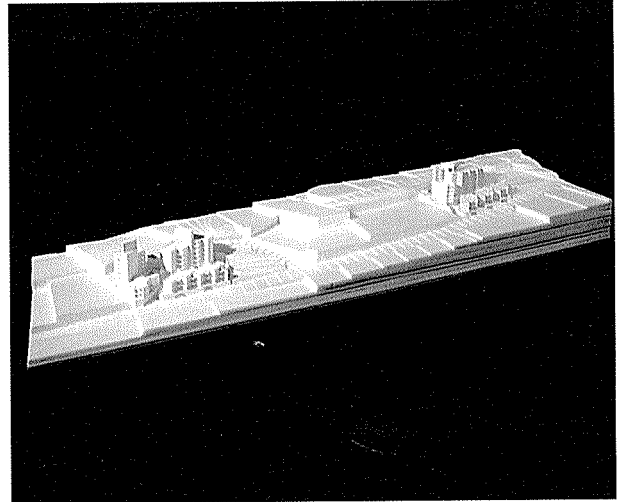
경사진 언덕길을 따라 뻗어 들어찬 빌라들은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분양될만치 요란한 모습이다. 붉은색 일색의 벽, 번쩍이는 스테인레스 난간, 울긋불긋한 지붕들로 이 일대의 풍경은 그야말로 이 몇 해 사이에 새로 개발된 서울의 남쪽 지역 주택이 그대로다. 굳이 다르다면 그 형태나 구성에서 유행?에 뒤떨어진 듯한 디자인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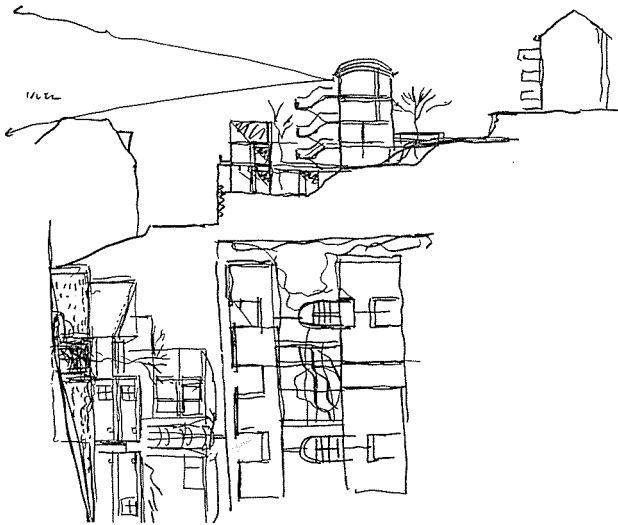


외관처럼 내부도 전혀 다르지 않아 비싼 값에도 싸구려처럼 보이는 마감재료나 위생기구가 눈에 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집들에 만족하는 것일까? 국적불명의 스타일에 세련된 감각도 모자라는 이런 종류의 주택을 바랄까? 주택이란 어차피 쓰는 사람의 욕구에서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집을 짓는 주택업자나 건축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은 이 풍광 아름다운 언덕에 섰을 때 노여움으로 바뀌었다. 수많은 쓰레기와 밀려오는 부끄러움에 치를 떨었다.

달맞이 언덕에 짓는 집은 붉은 벽돌과 아스팔트 싱글을 써야 된다는 것이 맨 처음 해운대 구청에서 알아 본 적용지침이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축심의회에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가 이 황당한 지침을 만들었을까? 부산시장의 지시라고 했다. 앞으로 민선시장이야 그리하지 않겠지만 이처럼 우스운 일은 그 때는 어느 도시에나 흔히 있는 일이었다. 관련된 여러가지 법과 지방별로 제정된 조례를 지켜야 하고, 앞서와 같은 시장방침에 더하여 서울에서는 구청장방침이란 것도 있던 시절이었다. 당시의 시장이나 구청장에 따라 심의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의 모습이 이상하게 변해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해운대지역의 환경에서는 적절치 않음을 강조하였음에도 철석같은 지침은 우리가 계획에 손을 댈지 몇 개월만에 새 시장에 의하여 백팔십도 바뀌어 버렸다. 이제는 붉은 벽돌을 쓰지 말고 밝은 색이어야 된다는 것이었





다. 그렇잖아도 곤혹스러웠던 터라 이 변경은 무척 다행스러웠지만 뒤끝이 영 시원치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오백평쯤되는 필지 3개가 한 길을 따라 150미터 가량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사지에 필지마다 50에서 70평의 공동주택 18세대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다양한 단위세대를 만들고 싶었다. 말이 공동주택이지 현대의 도시주택에서는 실제로 어떤 공동생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집합주택이라 함이 옳다. 다양한 삶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상호간의 관계와 각 세대의 가족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작고 사소한 행위를 통하여 연대의식과 동질성을 발견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시아선수촌 이후 줄곧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해운대빌리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안한 가회동11번지계획에서도 나타난다.

집과 집사이의 공간을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좁은 골목길의 성격으로 만들고 세대 현관은 모두 이 길에 면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마주치게 한다. 흔히 강조하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도 우리 사회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란 성격은 선택적인 것으로 내가 필요한 때 주변으로 부터 차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벽을 둘러쳐서 고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를테면 공용 마당에 면한 거실의 창에 커튼을 설치하면 시선은 막더라도 마당에서 뛰어 노는 어린이의 즐거운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높은 위치라 바다가 시원스럽게 보여야 하건만 이미 앞쪽에 장벽처럼 서 버린 고급?빌라 탓에 2층정도에서는 어림도 없게 되어 도로에 면한 집은 아예 두개 층으로 만들고 45도로 어긋난 방향으로 멀리 해수욕장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앞동을 낮춘 덕에 뒷집에서는 바다가 바라보인다. 바다와의 관계는 이 단지에서 중요하다. 그것은 단지 비치나 수평선을 바라보는 일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장소성을 잘 분석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바닷가의 집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다. 밝은 빛깔의 외벽은 지그재그모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경쾌함과 리듬이 느껴진다. 비록 공사도중에 잘못되어(강도로 엉뚱하게) 바뀌어 버렸지만 언덕너머 어촌의 돌담을 차용한 것도 달맞이 언덕의 장소적의미를 강조한 뜻이다.

가운데 골목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대지의 경사를 따라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계단과 경사도가 중간중간에 놓여 있어 움직이며 바뀌는 풍경을 보여준다. 넓고 곧은 길보다 집을 따라 오르내리며 좁은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즐거움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나쁜 상황(이 일대의 빌라들이 호화스럽다는 편향된 방송보도때문에 분양이 어렵게 되었다.)과 조건이 겹쳐 이 프로젝트는 전체 세 블럭중에서 2개만 완성되었고 지은 지 2년이 넘도록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손을 떼게 되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